

# 慶州國立園 境內에

## 保存되어있는 新羅文化

金 憲 奎

(本會理事·I·U·C·N國立公園  
委員兼教育委員·農博)



이 글은 1984年 9月 14~19日 第1次 世界文化公園會議가 미국 콜로라도州 Mesa Verde 國立公園에서 開催되었을 때 本會理事인 金 憲奎 박사가 發表한 內容을 간추린 것인데 美國에서 原文到着이 늦어져 이제 掲載하게 됨을 밝힌다. (編輯者註)

### 慶州는 史蹟·自然·文化公園

新羅는 西紀前 57年에 朴赫居世가 建國하여 56代王이 992年동안 統治한 나라이다. 首都는 지금의 慶州였고 慶州國立公園은 1968年12月31日에 指定되었다.

新羅文化를 잘 保存하기 위한 史蹟公園이요 自然公園이요 文化公園이다.

新羅는 7世紀에 와서 高句麗·百濟·新羅 中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三國을 統一하였다.

新羅가 강한 나라가 된 것은 花郎이라는 靑少年團體가 6世紀에 조직되어 武術도 닦고 花郎五戒라 하여 生活의 基本이 되는 道德的인 訓練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花郎五戒는 (1) 나라에 忠誠을 다하고 (2) 父母에 孝道하며 (3) 親舊에게 信義를 지키고 (4) 臨戰不退 (5) 殺生을 禁하는 것 등이다.

위와같은 花郎精神을 靑少年들에게 傳授하기 위하여 1973年에 “花郎의 집”을 慶北教育委員會에서 慶州에 設立하고 高校 2年生을 대상으로 5日間 訓練시킨다. 一時에 350名을 收容할 기숙사가 있어서 해마다 11,000名을 훈련시키고 있다.

訓練內容은 집단훈련·講義·討論·野外訓練等이다. 野外訓練은 慶州國立公園 境內를 돌며 自然과 史蹟을 답사하는 16km의 徒步行進으로 學生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新羅의 3大人物로는 唐나라 文化를 輸入하였고 첨성대를 지은 善德女王과 金庾信將軍 그리고 三國을 統一한 文武王이 소개되었으며 佛國寺의 多寶塔·釋迦塔·石窟庵·에밀레鐘 등이 소개되었다.

### 三國統一

단군神話を 믿는 사람들은 西曆紀元대신에 예수탄생보다 2,333년전에 開國한 단군年號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李承晩대통령은 단군年號를 썼으며 1984年을 단기 4317年이라고 쓰게 하였다.

그러나 단군기원에 대한 문헌을 찾을 수 없어서 여기서는 西曆紀元을 쓰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三國遺事·三國史記 등 확실한 문헌에 따라 新羅가 西紀 660年에 三國을 統一한 때부터의 文化를 考慮할 수밖에 없다.

新羅는 歷史的으로 가장 먼저 國家와 政府의 形態를 갖춘나라였고 花郎道라는 훌륭한 武官들을 배출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三國統一은 가능했던 것이다.

金庾信將軍은 가장 뛰어난 武官의 한사람이었으며 三國統一을 이룩한 張本人이기도 하였다.

### 花 郎

花郎은 新羅의 독특한 靑少年組織으로 아마도

部族社會時代부터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될 때 軍隊로써 봉사하기 위해서 武術과 道德訓練을 쌓는 오늘날의 士官學校와 비슷한 役割을 한 團體였고 金春秋도 花郎出身으로 나중에 王으로 추대 된 후에 三國을 統一한 功을 세웠던 것이다.

위에서 言及한바와같이 花郎들은 五戒를 잘 지키며 訓練을 받았던 것이다.

### 善德女王(西紀 632—647) (金氏家門의 후예)

善德女王은 新羅의 3대女王中에 가장 뛰어났던 女王이었다. 唐文化를 수습하였고 첨성대와 巨大한 塔들을 세웠다.

善德女王은 早熟型이었고 지혜로운 女性이었다.

그녀가 王位에 오르자 唐나라 皇帝가 牡丹꽃 3송이를 그린 그림 한 幅과 모란씨앗 한봉지를 선물로 보내왔는데 女王은 이 꽃그림을 보고 이 꽃은 香氣가 없겠다고 하였다. 臣下들이 그 理由를 물으니 꽃은 있으나 나비가 없지않으나 하고 말했는데 果然 씨앗을 심어 가꾸 본 결과 꽃에는 香氣가 없고 나비가 날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臣下들이 또 왜 그럴까요하고 물으니 唐나라 皇帝는 내가 男便이 없기 때문에 농담조로 이런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답하였다 한다.

### 瞻星臺(국보31호)

첨성대는 新羅 27대王 善德女王的 命令으로 지은 極東地域의 最高의 天文臺이다.

그 당시에는 宇宙間에 발생하는 모든 現狀과 人類社會 및 各個人의 身邊에 일어나는 事件은 모두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별을 관측하는 天文臺의 必要性은 절실하였다. 나라의 國王은 宮中臣下들의 별을 보고 해석한 報告에 따라 政策도 펴고 農事도 計劃했던 것이다.

이 天文臺는 한때 100만 人口를 자랑하던 慶州市 한복판에 位置하고 있다.

花崗石으로 된 瞻星臺는 365個로 지어졌다. 最下端은 12個의 直角形으로 된 돌을 基礎로 놓았고 별을 관측하는 窓門은 밑에서부터 12층에서 시작

하여 15층까지이고 그 위에 12층을 더 쌓아 모두 27층을 쌓은 등근건축물로 窓門아래·위를 12층으로 한 것은 1年 12個月을 뜻하는 것인지 瞻星臺의 不可思議로 남아있다.

### 金庾信將軍

金庾信將軍은 확실히 新羅의 가장 偉大했던 大將軍이었다. 그의 天才的인 戰略을 통해서 30代王인 文武王治下에서 新羅를 統一시켰다.

金庾信將軍은 伽倻國 金首露王의 直系子孫이며 6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키웠고 그 中에서 둘째아들 元術을 가장 사랑하였다. 武術에 뛰어나고 재주가 많았기 때문이다.

中國의 가혹한 침략전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자 金庾信將軍은 元術을 戰線에 내보내고 勝戰을 기다리고 있었다. 不幸이도 新羅軍은 大敗하고 元術將軍은 칼을 뽑아 自盡하려고 할 때 그의 部下들은 그의 칼 든 손을 붙잡고 아직은 將軍이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金庾信將軍은 自己아들이 名譽의 戰死를 했으리라고 상상하고 있었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大怒하여 왜 戰死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며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 元術花郎은 할 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집을 떠났고 金庾信將軍은 自己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나중에 金庾信將軍의 臨終이 가까왔다는 소문을 듣고 元術이 집으로 달려왔으나 金庾信將軍은 끝내 元術을 만나주지 않았다.

다음해인 西紀 674년에 100萬 唐軍이 平壤까지 쳐들어와 國運이 위태롭게 되자 元術花郎은 다시 出戰하여 大勝을 거두고 바른팔을 다쳐 봉대를 감고 개선했다. 그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통곡하며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勝戰의 영광을 家門에 바쳤을 것을 하며 슬퍼하였다. 金庾信將軍은 西紀 673年 78세를 一期로 이미 세상을 떠났었다.

金庾信은 15세 少年時節에 花郎에 加入하여 武術과 정신교육을 받았고 장성하여 高句麗를 쳐부셨고 西紀 660년에는 百濟를 공격하여 三國統一

에 寄與하였다.

그는 나중에 42代王 興德王으로 추대되었고 그의 무덤(慶州市 西岳里)은 史蹟 21호로 保存되어 있다.

### 文武王(西紀 661—681)

文武王은 新羅의 가장 偉大한 王으로 三國을 統一하는데 功이 많은 분이다.

그는 武烈王의 7王子中의 長子였고 生前에 金庾信將軍과 손을 잡고 政事를 다스렸고 臨終時에는 自己가 죽으면 東海의 바다속에 장사지내라고 遺言하였다. 그의 魂이 龍이 되어 倭敵의 侵略을 막아내겠다는 유언이었다.

그의 유언은 그의 아들 神文王(681—692)에 依하여 지켜졌으나 長久한 歲月동안 무덤을 찾지 못하다가 1967년에 비로소 慶北 月城郡 陽北面 龍堂里에 있는 感恩寺址東편 約2百미터 奉吉里 海中의 大王岩이 발견되었으며 史蹟 158號로 지정되었다.

### 佛敎寺刹

현재 南韓에는 7,253개 사찰과 750만 信徒가 있으며 2,100명의 僧侶들이 절에서 살고 있다(文公部 統計). 그중의 가장 有名한 4大寺刹은 석가모니의 舍利가 묻힌 通度寺, 八萬大藏經을 保有하고 있는 海印寺, 佛敎의 敎理를 강론하는 松廣寺와 나라의 平和와 융성을 위하여 23代王 法興王(西紀 514—540)때 지은 佛國寺 등이다.

佛國寺는 1970—73年 동안에 原形대로 復元되어 지금은 많은 觀光객이 찾아들고 있다.

大雄殿에 올라가는 돌계단은 國寶로 지정되어 있다.

佛國寺 大雄殿 앞에는 釋迦塔과 多寶塔이 서 있다.

釋迦塔은 높이 27尺이고 男性을 象徵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復元工事時 塔속에서 經典·舍利箱·銀板에 새긴 經典 등이 나와 지금은 國立博物館 保存되어 있고 塔은 國寶 21號로 지정돼 있다.

多寶塔(國寶 20號)은 석가모니의 說法을 상징하며 女性美를 나타낸다고 傳해지고 있다. 多寶

塔은 釋迦의 弟子 多寶如來의 이름에서 由來되고 있으며 塔에 오르는 西쪽계단에는 돌로 조각된 獅子가 앉아있다. 여기서 獅子는 보호자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塔은 절마다 가지고 있으며 3층탑·5층탑·9층탑을 막론하고 基壇部·塔身部·塔頭部의 3部로 나뉘고 後世에 傳하기 위한 舍利·經典·거울같은 것은 塔身에 간직된다.

塔은 身體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모든 人間은 걸어다니는 塔이라는 것이다. 다리는 基壇·胴體를 塔身·머리를 塔頭로 생각하면 3층탑이고 허벅다리·종다리·동체·머리·목을 나뉘 생각하면 5층탑이고 두팔을 하늘을 向해서 들면 9층탑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해석은 筆者獨自의 해석이 아니고 通度寺에 갔을 때 鏡峰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 石窟庵

石窟庵은 東洋文化의 極致를 나타내는 美術品이며 國寶 24號로 지정되어 있다. 石窟庵은 吐舍山頂에 位置하고 있으며 佛國寺에서 徒步로 1시간가량 걸린다.

8世紀 中半에 金大城宰相이 佛國寺와 함께 建立한 것이다.

石窟庵을 지은 目的은 三國을 統一한 文武王을 尊敬하는 뜻에서 大王岩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建立한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吐舍山은 新羅를 지키는 5大聖山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石窟庵속에 앉아있는 부처님은 大王岩 무덤에 잠들어있는 文武王의 애국혼과 함께 東海로 侵入하는 倭敵을 경계하고 있다.

### 寺刹의 鐘

新羅時代에는 一時에 수백寺刹이 建立된 때도 있었고 절마다 鐘이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종을 울렸다.

가장 오랜 된 종은 新羅時代에 主조된 上院寺 銅鐘으로 聖德王(702—737)때 主조된 것이다.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靑銅으로 만들어졌으며 高 1.67m 鐘口의 直徑 91cm이다. 처음에 어느절

에 있었는지 分明한 기록이 없으나 1469년에 五台山의 上院寺로 옮긴 기록이 있으며 현재도 上院寺에 있다. 國寶 36號로 지정됐으며 한국 最古의 종이다.

다른 하나의 有名한 鐘으로는 西紀 770년에 主조된 에밀레종으로 한때 奉德寺에 聖德王을 崇慕하기 위해서 달았었으나 지금은 慶州博物館 앞뜰에 保存되어 있다.

鐘의 表面에 새겨진 디자인은 他의 追從을 不許하며 우렁찬 종소리는 40마일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韓國에서 가장 큰 종으로 높이 3.33m 鐘口의 지름 2.27m이고 國寶 29號이다.

매일아침 3時30분에 28번 午後 6時45분에 33번 울린다. 동시에 북도 5分間 울린다.

佛敎信者들은 중한번 칠때마다 지옥에 가있는 50명씩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으며 매일 朝夕으로 禮佛을 드린다.

《公式評은 아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代表들의 발표를 들으면 土人들의 文化(주택·무기·衣類·도자기 등)를 소개하는데 그쳤지만 한국에서는 新羅時代의 花郎精神을 본받고자 花郎의 집을 짓고 지금도 학생들을 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筆者 註》

### 參考文獻

1. Adams, Edward B. : (1983) Korea's Kyongju, 355p.
2. 慶州市廳(1981) : The Splendor of Silla, 357p
3. 文公部(1978) : A Handbook of Korea 825p
4. 〃 (1979) : Facts About Korea, 182p
5. 〃 (1982) : Arts of Korea, 75p
6. 한국일보社(1981)韓國의 旅路, 慶州篇 285p

TV

## 80年代에 들어와 國立公園管理는 ? 安元泰企劃委員, MBC「뉴스데스크」에

지난 7月13日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國立公園심층취재와 관련하여 建設部出入記者의 사회로 鄭淳虎건설부국토계획 국장과 서울시공원과장, 그리고 한국國立公園협회부설 自然公園研究所 본부장을 맡게 된 安元泰기획위원의 자연공원에 호교양프로가 방영되었다. 협회의자료에 의해 진행된 安위원의 답변을 간추려본다.

▲ 우리나라는 70年代까지 13個所이던 國立公園이 80年代에 들어와 4個所를 追加, 17個所가 되었고 山岳, 海岸, 海上, 史蹟, 都市周辺 등 公園의 數와 種類, 規模의 면에서 많은 發展을 보여 住民 1人당 國立公園의 面積이 100m<sup>2</sup>에 가까워졌다.

▲ 國立公園에의 政府投資面에서도 過去에는 公

園進入道路, 集團施設地區등 눈에 띄는 곳에만 集中된 느낌이었으나 80年代에 와서는 公園內部的 案内標識, 登山·探訪路, 野營場, 駐車場 待避所등의 整備, 開設등 利用探訪客을 위한 投資에 힘쓰고 있다.

▲ 國民들의 國立公園利用모습도 無秩序, 無節制자취가 점차 사라져 「쓰레기 가져가기 運動」이 普及되어 一部公園에서는 쓰레기통, 쓰레기 터를 없앴는데도 더럽혀지지 않는등 매우 바람직하게 發展하고 있다.

▲ 이제 政府는 많은 國民이 어느 公園에 가셔도 똑같은 水準의 施設을 利用할 수 있는 平準化된 公園投資를 계속해주고 公園을 찾는 探訪客들도 飲食物등을 적게가져가고 또 버리지 않는등 올바른 公園利用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